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13.(금)

산업부 장관, 체코 산업부 장관과 두코바니 원전사업 정상추진 협력 논의

- 한-체코 산업부 장관 면담하여 두코바니 원전 정상추진 협력 논의
- 산업부 주도 비상관리체제 현황,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 등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13일(금)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영상)을 진행하고, 한수원과 시공사 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하여, 팀코리아가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 개최하여 팀코리아의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팀코리아의 활동이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핵심 마일스톤('27.4월 건설허가 신청, '29.11월 착공 등)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1.12일 장관 주재 팀코리아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시공계약 협약 종료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면밀히 수립했으며, 신규 시공사 선정 추진계획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블리첵 장관은 체코측도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 중이므로 양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11.5일 이후 한-체코 산업부 간 국장급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연내 제4차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개최하여 사업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양국의 원전산업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체코측과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장관급 등 각종 협의채널을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며, “체코 원전사업 완수를 과정이 아닌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블리첵 장관은 “장관간에도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담당 부서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이수정 (044-203-52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